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CATI & ARS

제82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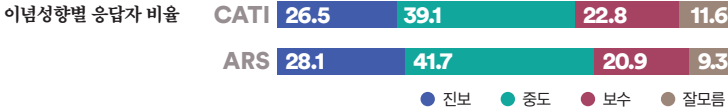
제97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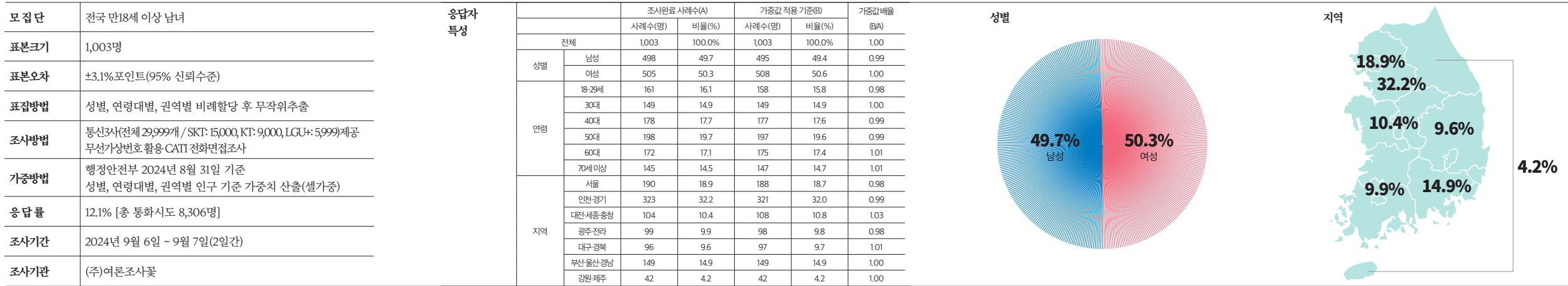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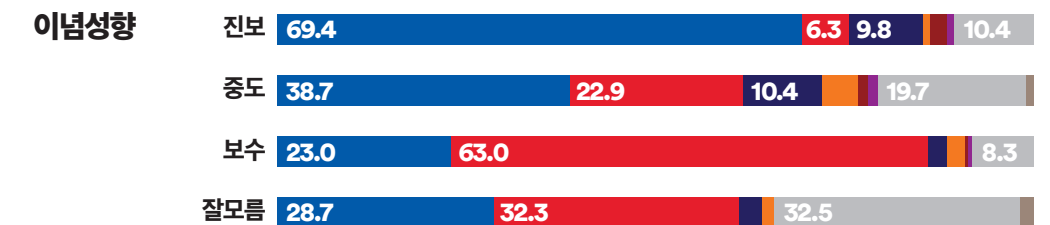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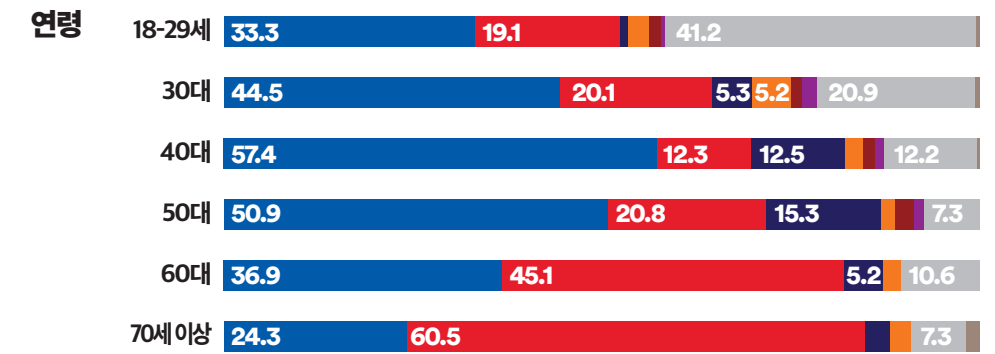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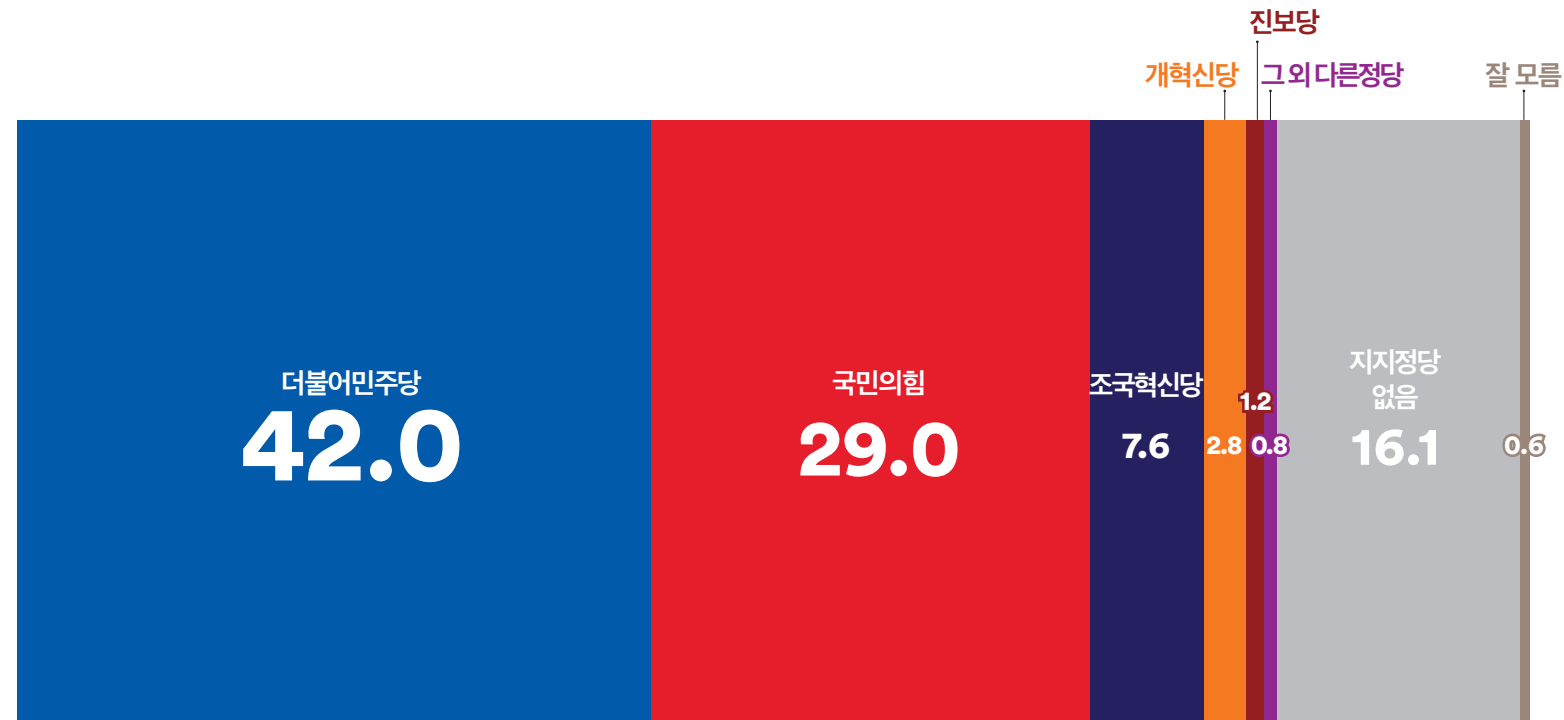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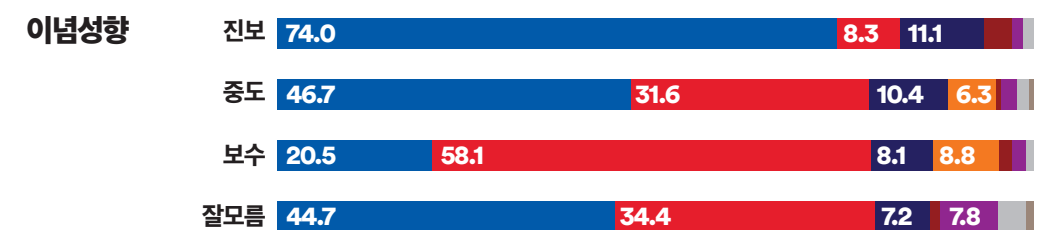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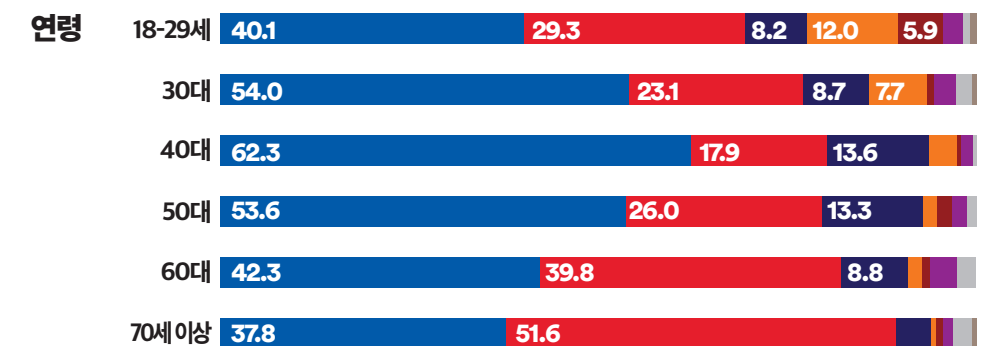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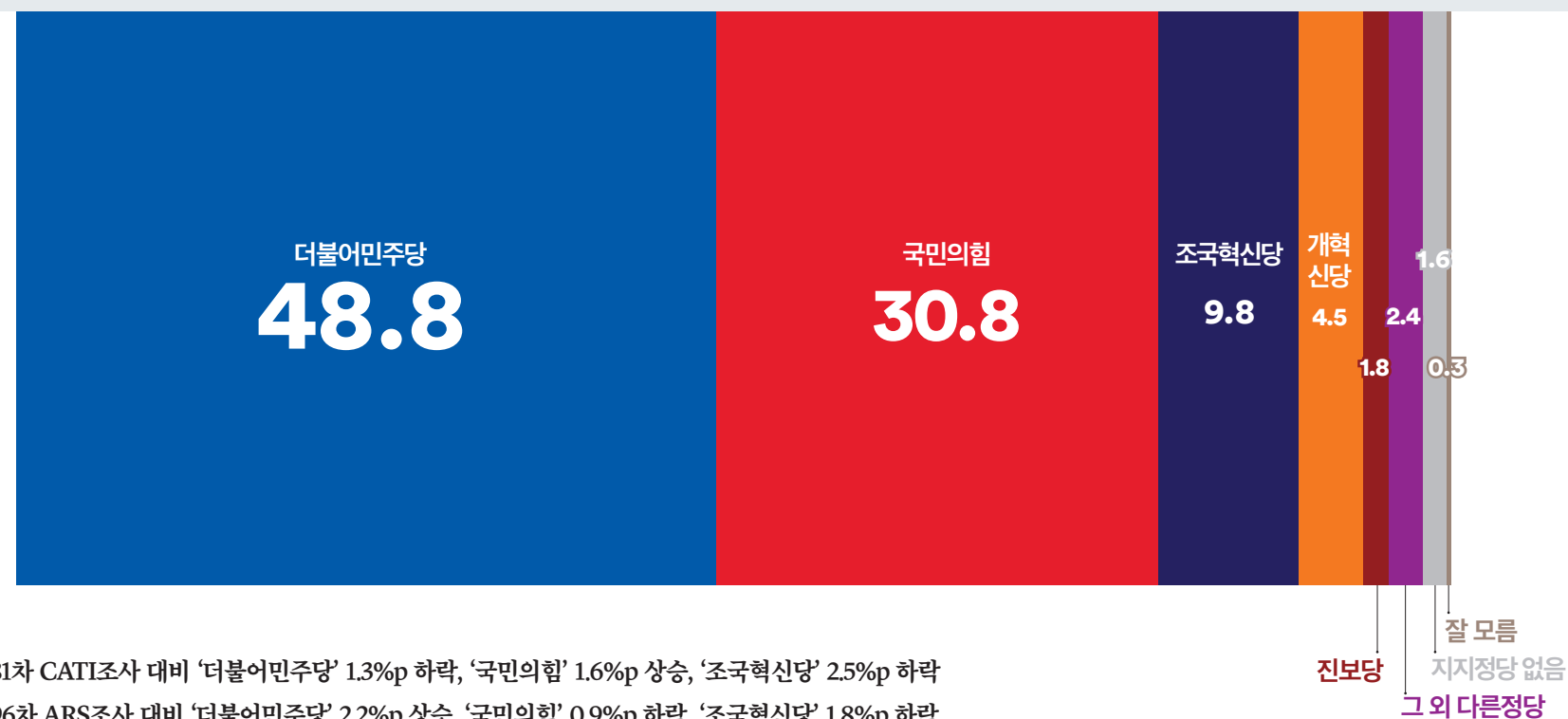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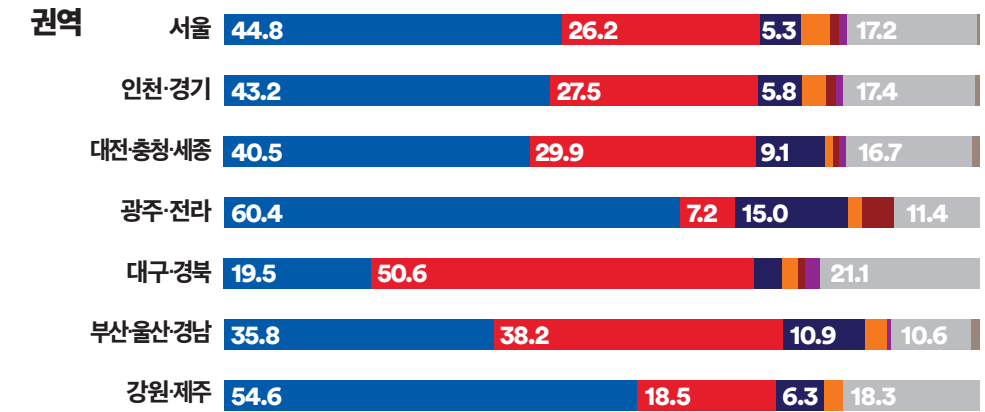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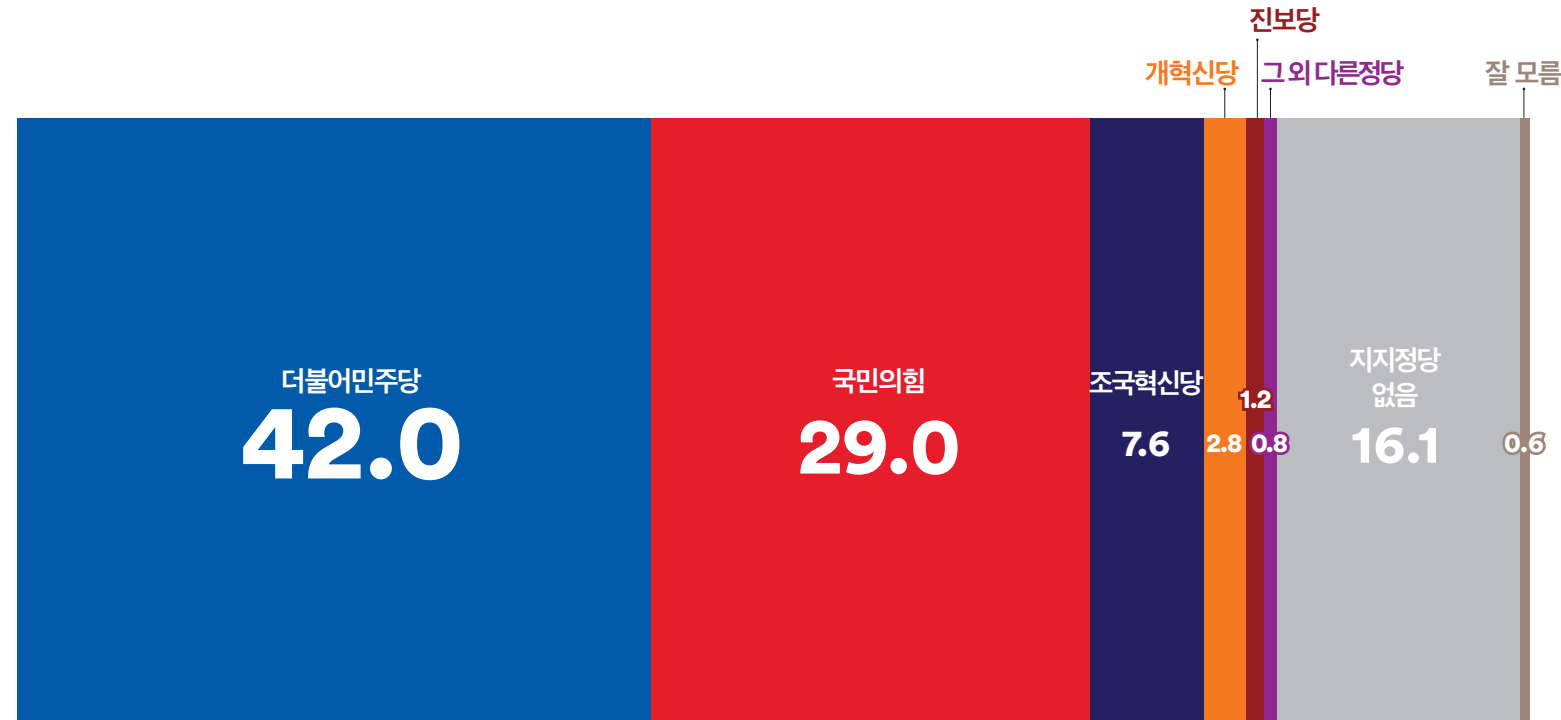


81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3%p 하락, '국민의힘' 1.6%p 상승, '조국혁신당' 2.5%p 하락  
 96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2%p 상승, '국민의힘' 0.9%p 하락, '조국혁신당' 1.8%p 하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간 격차는 CATI 13.0%p, ARS 18.0%p(지난 조사: CATI 15.9%p, ARS 14.9%p)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격차는 CATI 20.6%p, ARS 27.8%p(지난 조사: CATI 26.0%p, ARS 26.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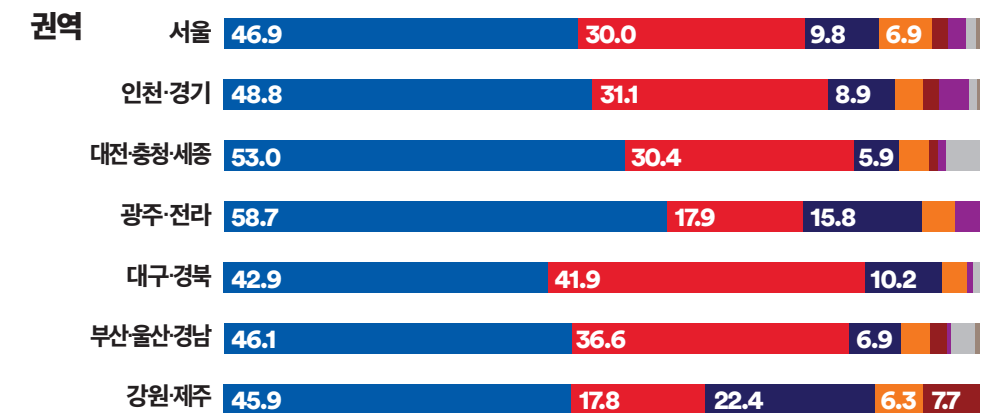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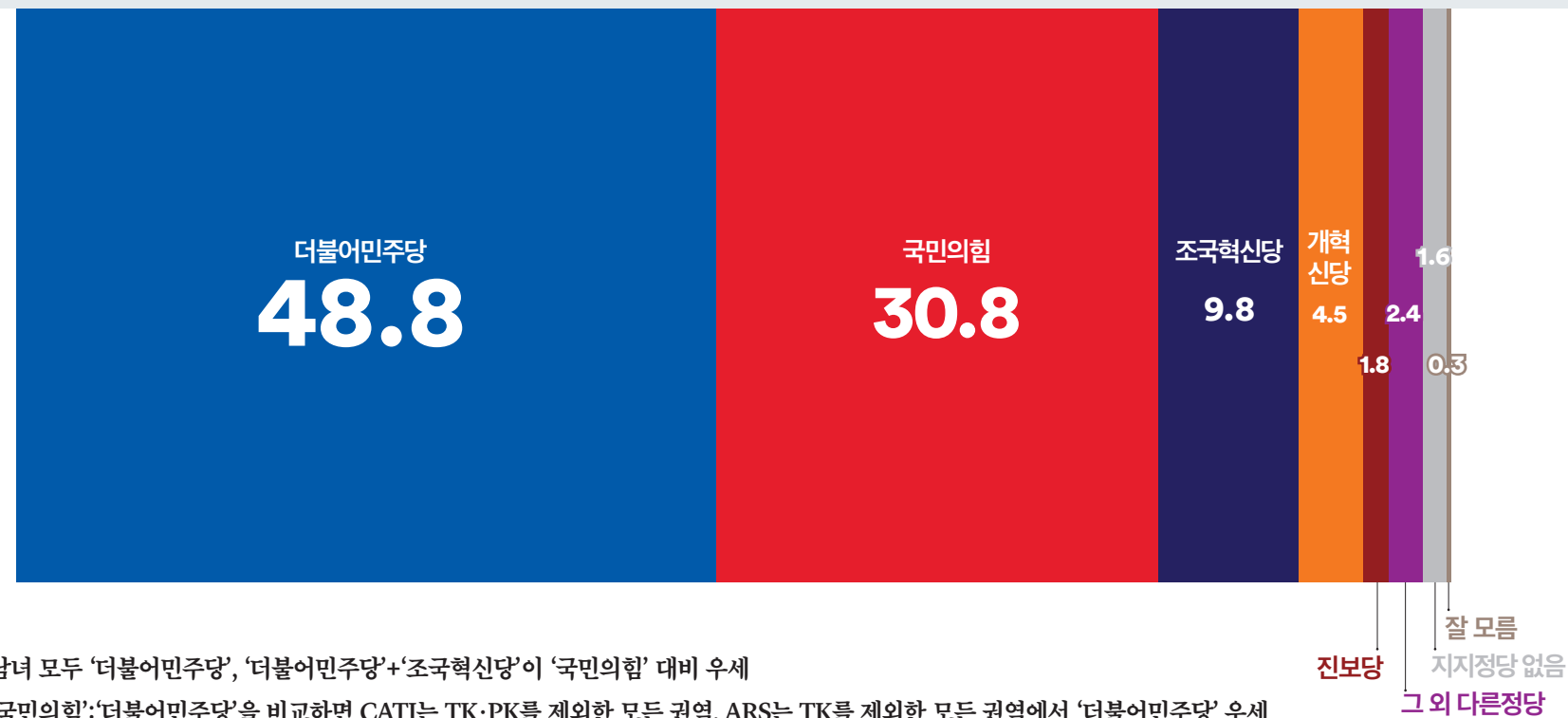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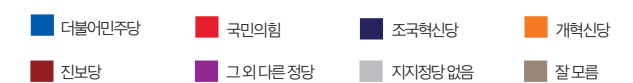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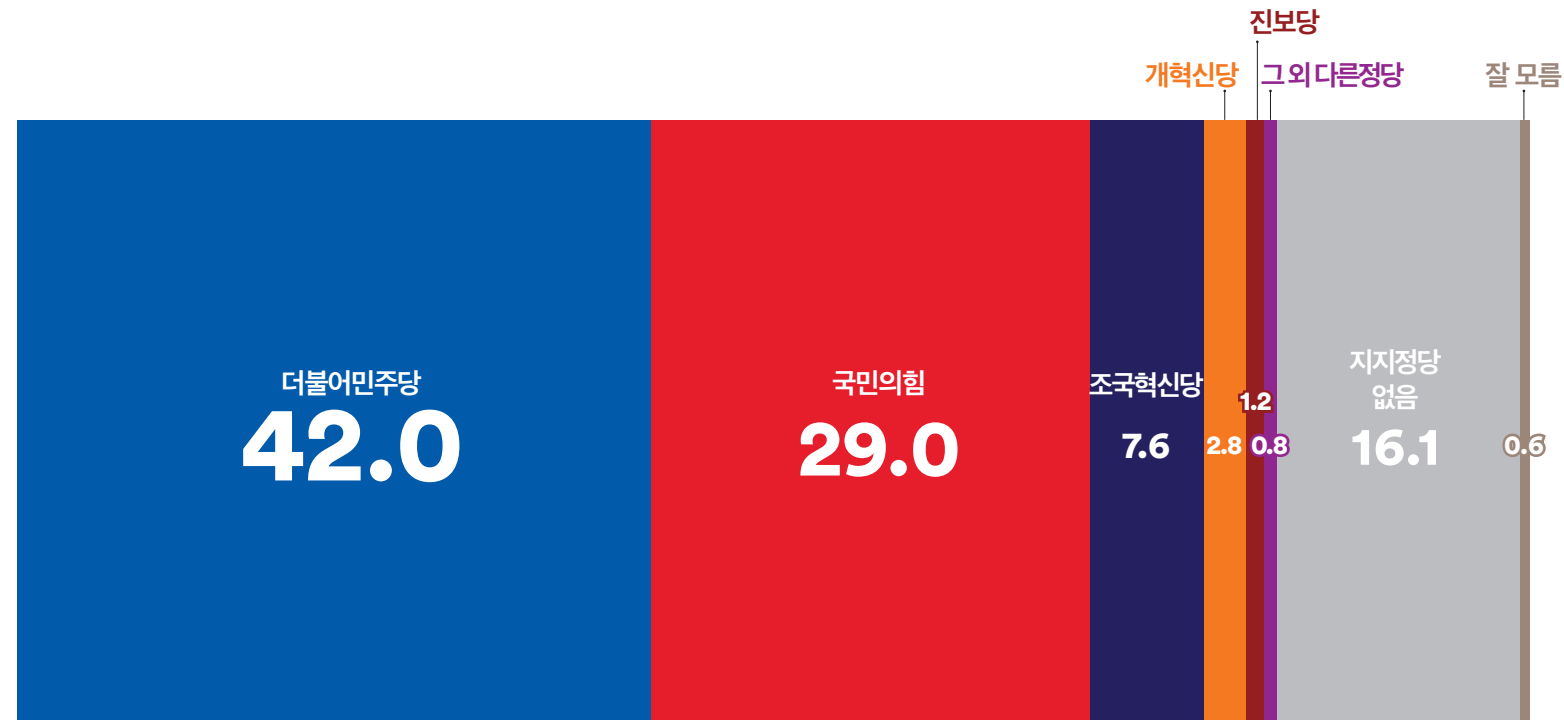


남녀 모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대비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CATI는 TK·PK를 제외한 모든 권역, ARS는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CATI는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 ARS는 모든 권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우세  
CATI조사의 TK권역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대비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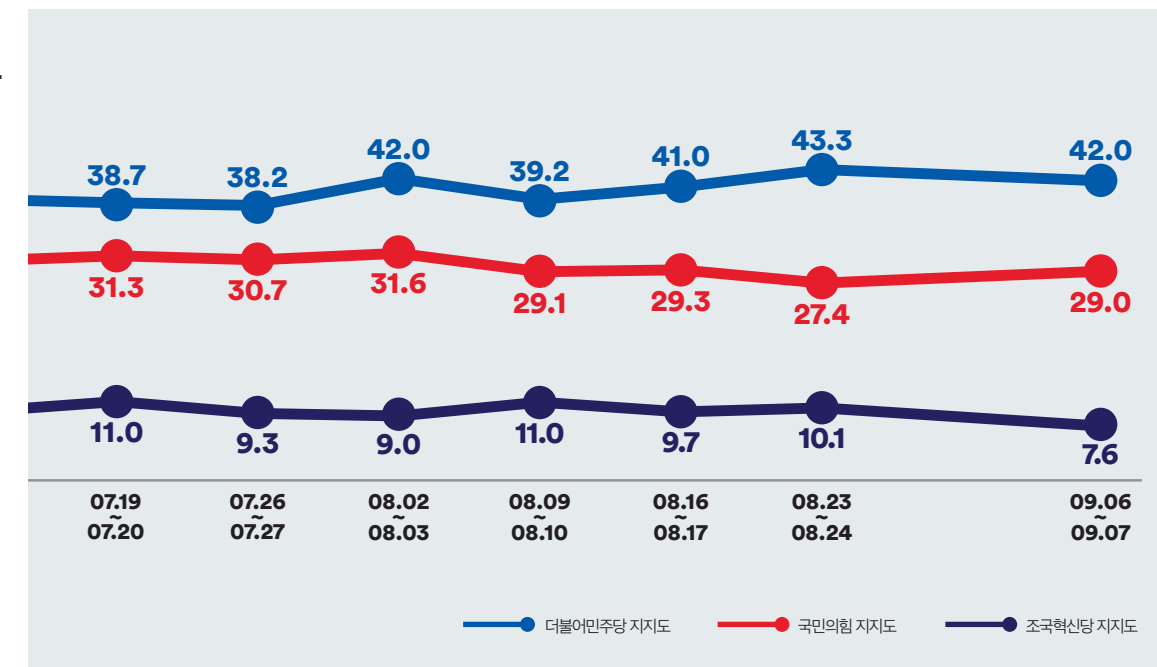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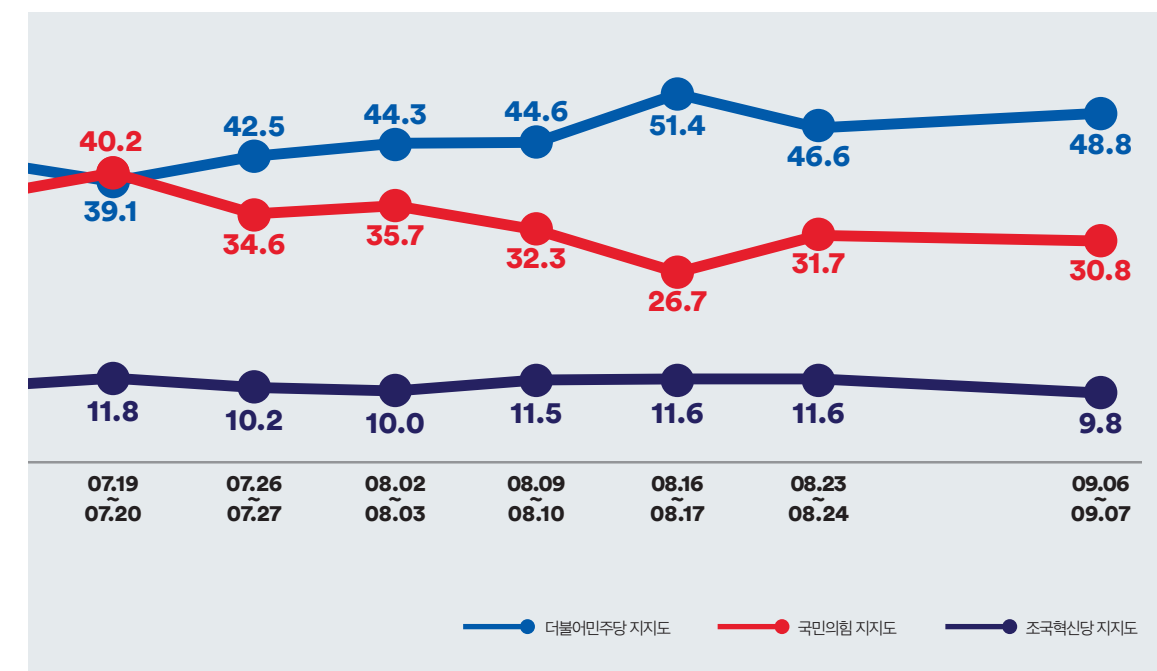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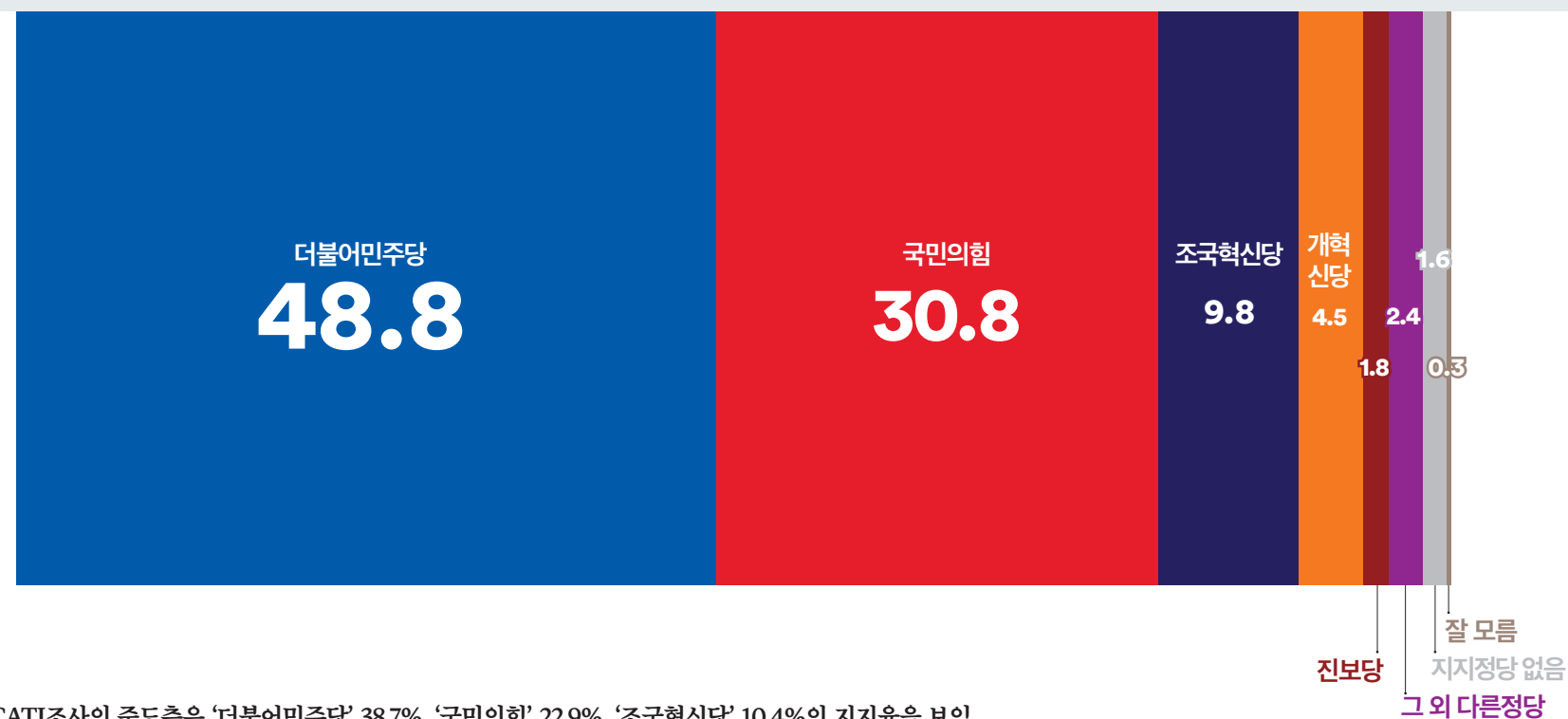
CATI



주차별  
정당지지도



ARS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38.7%, '국민의힘' 22.9%, '조국혁신당' 10.4%의 지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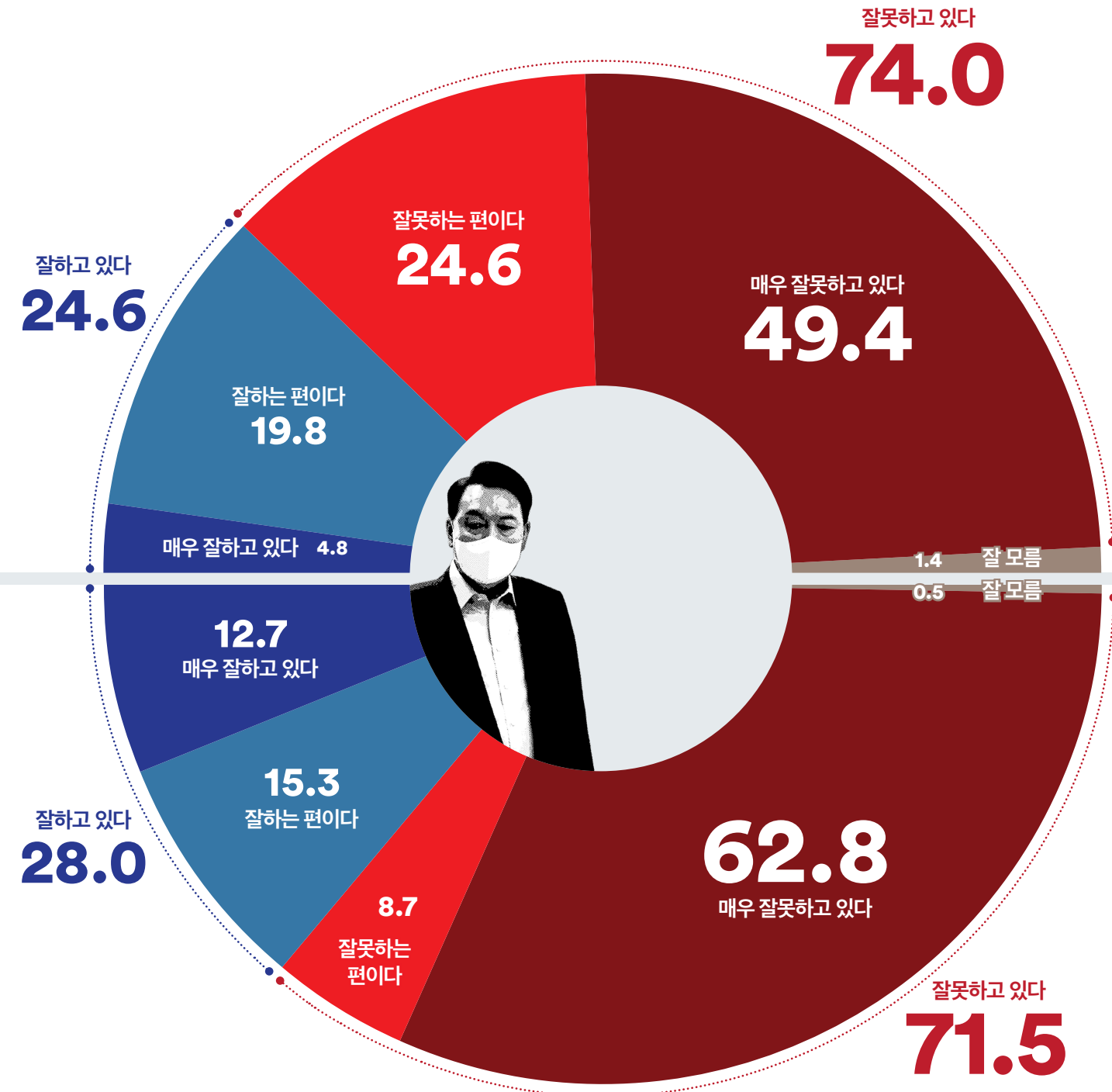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6.7%, '국민의힘' 31.6%, '조국혁신당' 10.4%의 지지율을 보임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26.2%p(81차: 36.3%p), ARS 25.5%p(96차: 26.0%p)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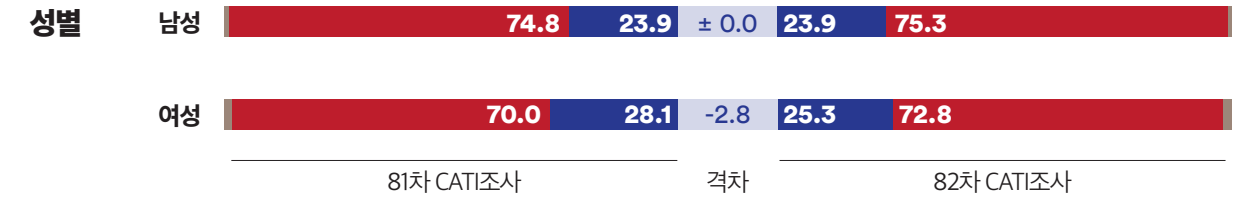


지난 81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14%p 하락, '부정' 평가 1.6%p 상승(격차 49.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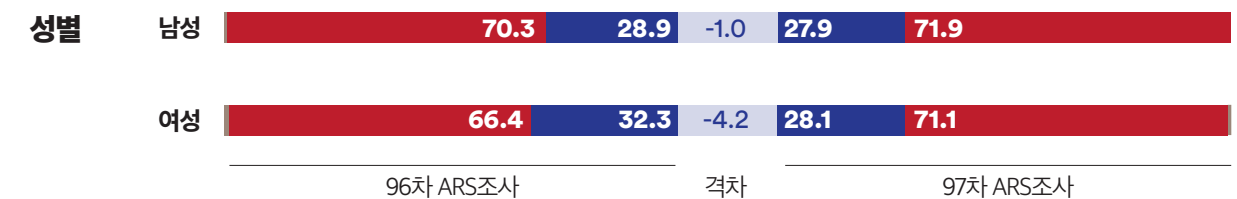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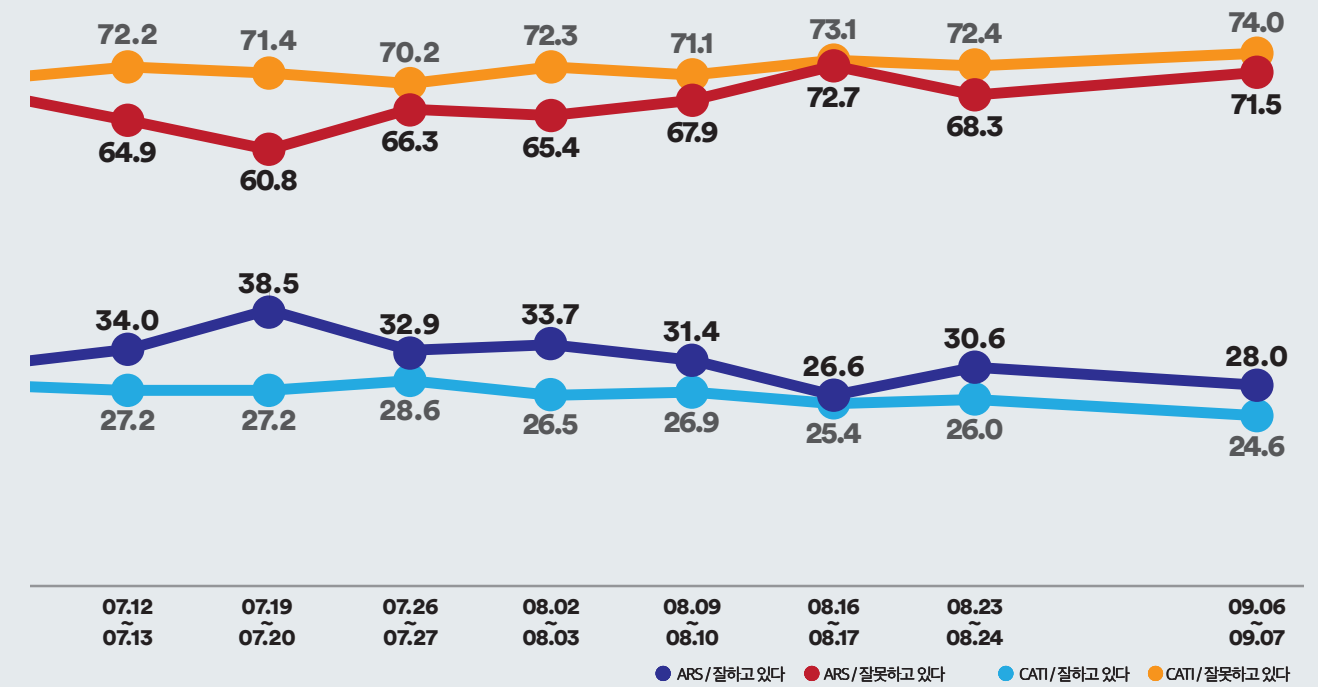
지난 96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2.6%p 하락, '부정' 평가 3.2%p 상승(격차 43.5%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남·녀 모두, 60대 이하 연령층(ARS 70세 이상 포함)에서 '부정' 평가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의 평가 간 격차는 CATI 57.3%p(지난 조사: 63.4%p), ARS 46.3%p(지난 조사: 45.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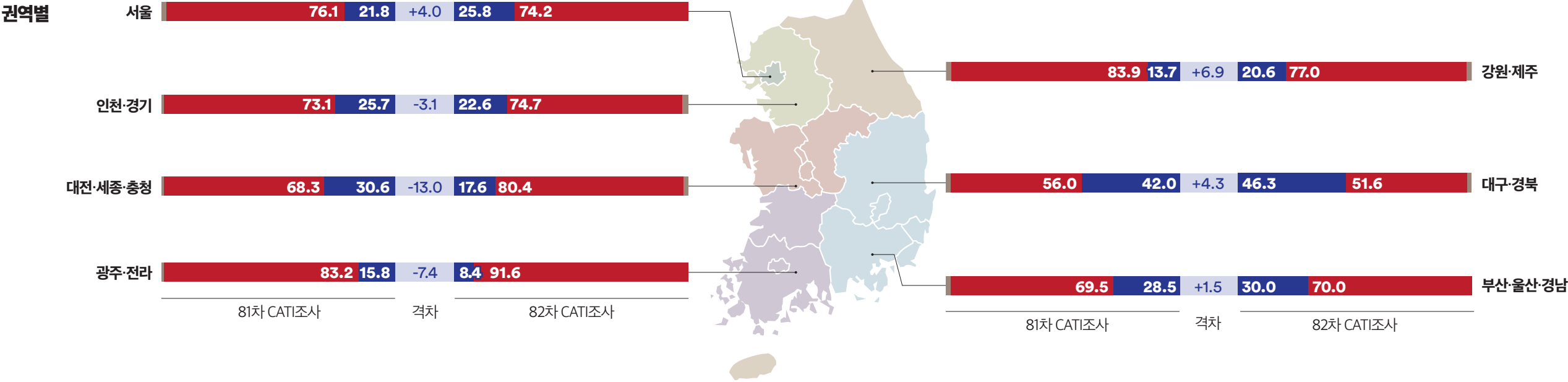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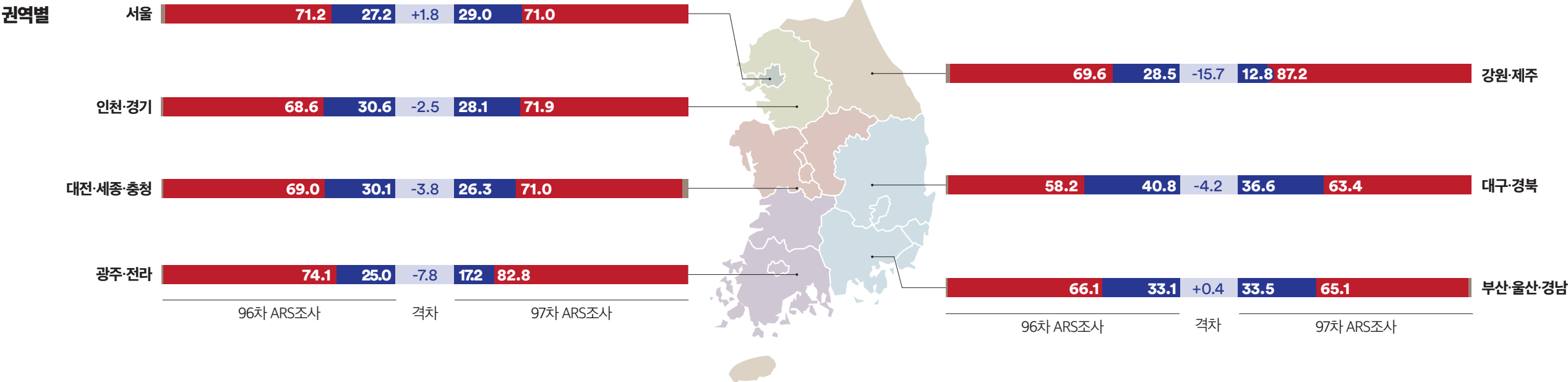
격차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는 편이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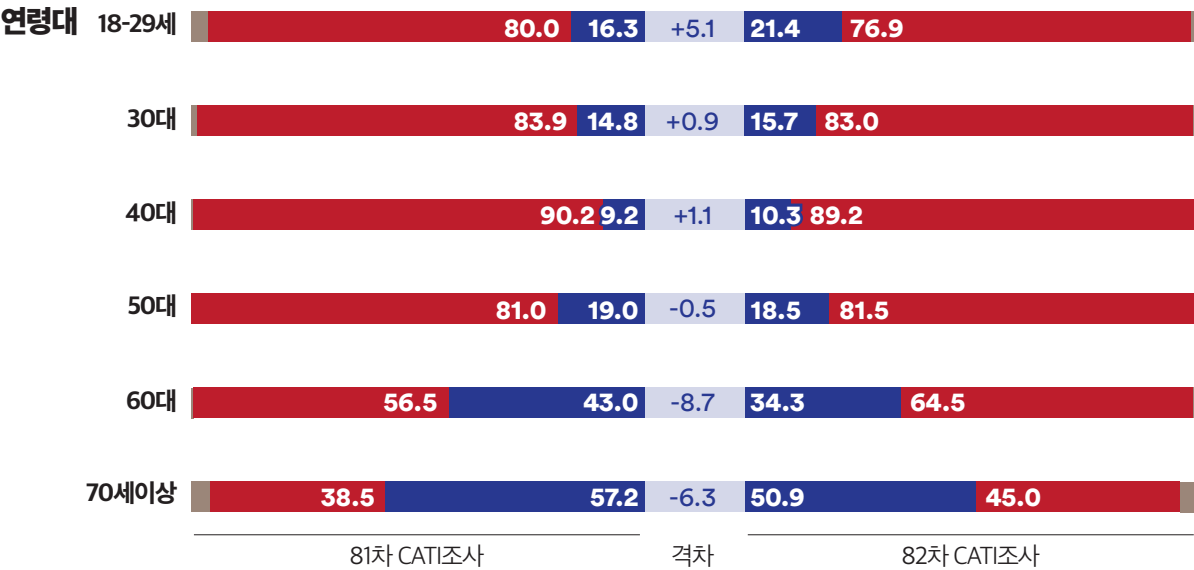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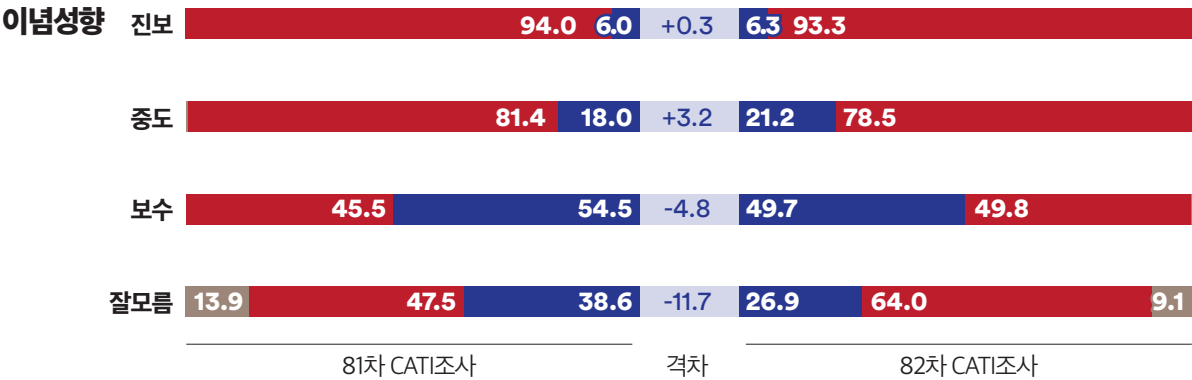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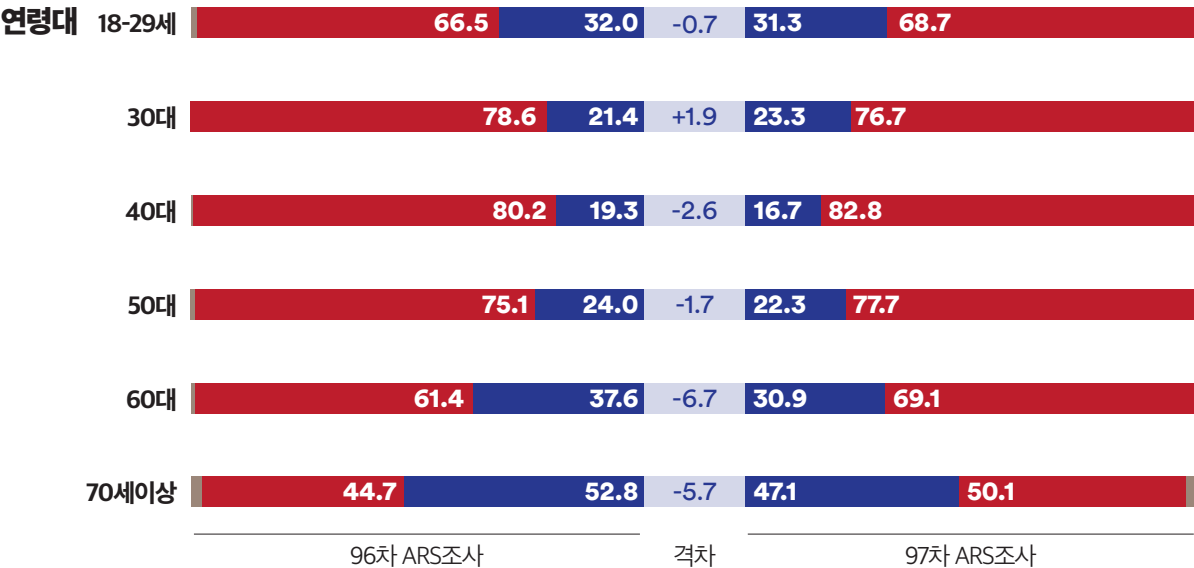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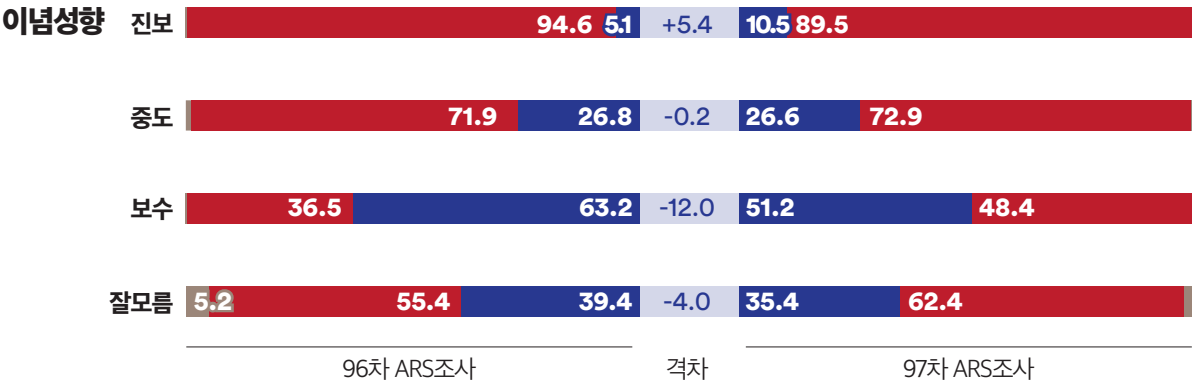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전공의사 1만 3천여 명 중 1만 2천여 명의 미복귀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불필요한 국민불안을 증가시킨다’고 했는데요, 귀하께서는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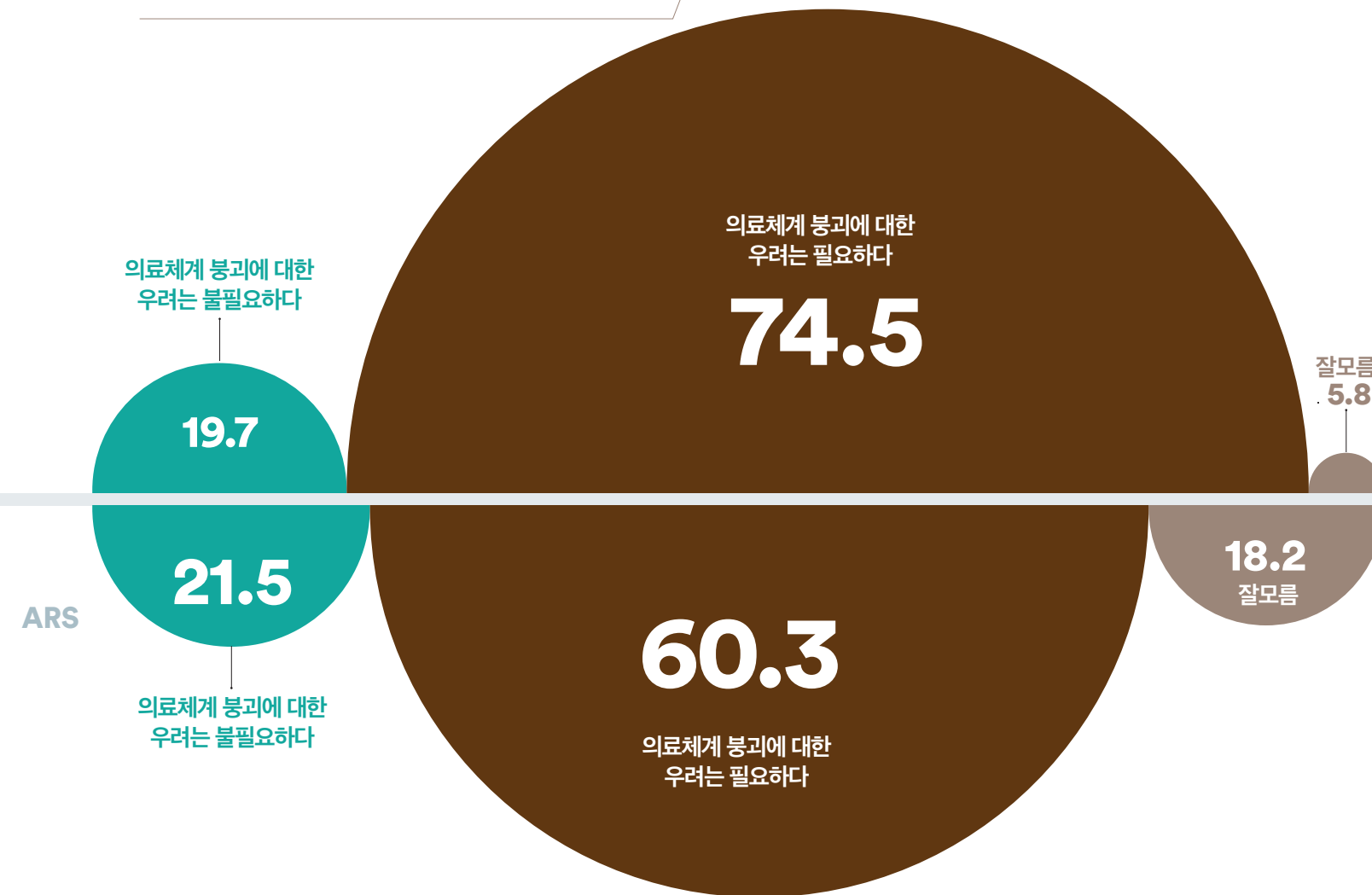
“이재명 대표가 여야 회담을 하면서 ‘응급실 뺑뺑이’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 발생량을 초과하고 있다’고 한 주장은 정부 통계로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근거 없는 주장은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월 2일 용산대통령실 정혜진 대통령실 대변인]

“정부여당의 참 인식 수준이 걱정됩니다. ‘의료 현장 한번 가봐라, 별 문제 없다고 한다’든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이것이 무슨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승부처럼 생각하는 정부 관료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운영, 국정 운영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9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료대란대책특위·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 모두발언]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걱정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10명 중 2명 정도(응답간 격차: CATI 54.8%p, ARS 38.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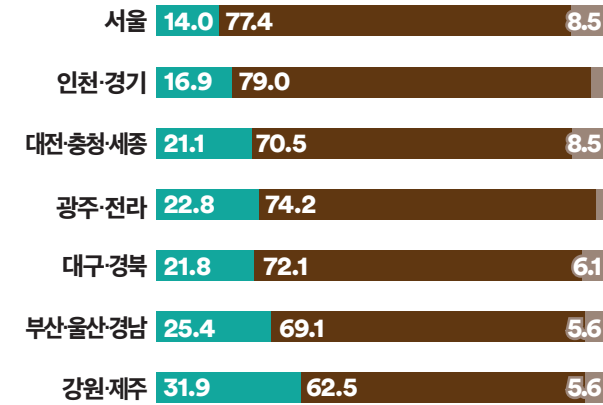
모든 권역과 연령대 및 성별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

CATI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에서도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결과보다 10%p정도 높은 수준  
(CATI 국힘지지층 ‘불필요’ 30.7%, ‘필요’ 61.8% / 국정운영 긍정층 ‘불필요’ 33.4%, ‘필요’ 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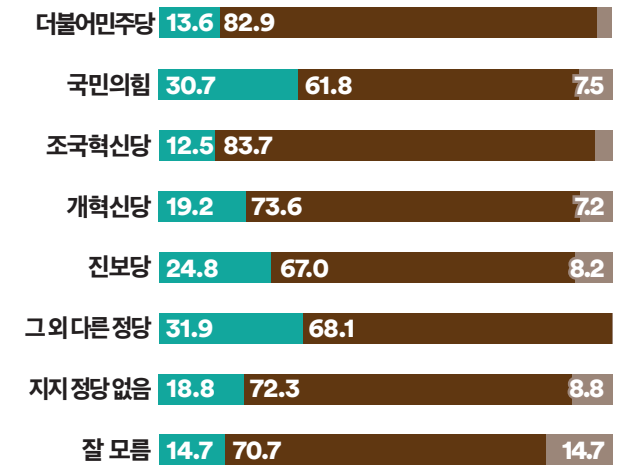
ARS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의 경우 잘모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ARS 국힘지지층 ‘불필요’ 33.5%, ‘필요’ 39.8%, ‘잘모름’ 26.7% / 국정운영 긍정층 ‘불필요’ 38.0%, ‘필요’ 34.7%, ‘잘모름’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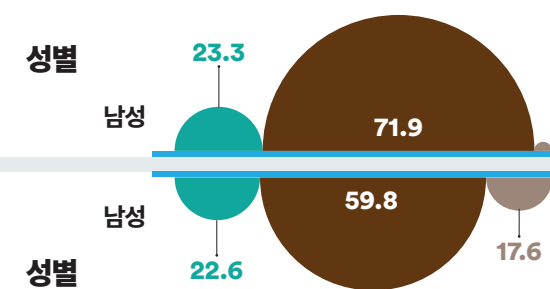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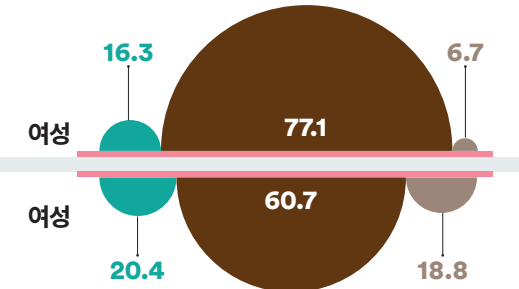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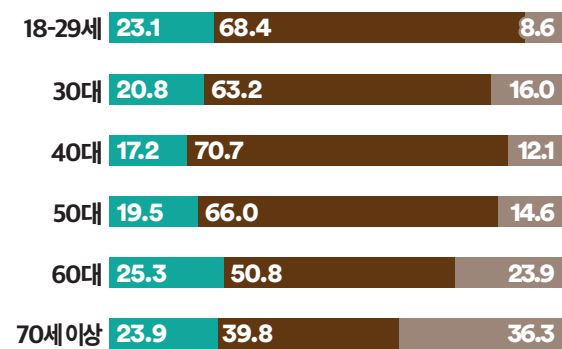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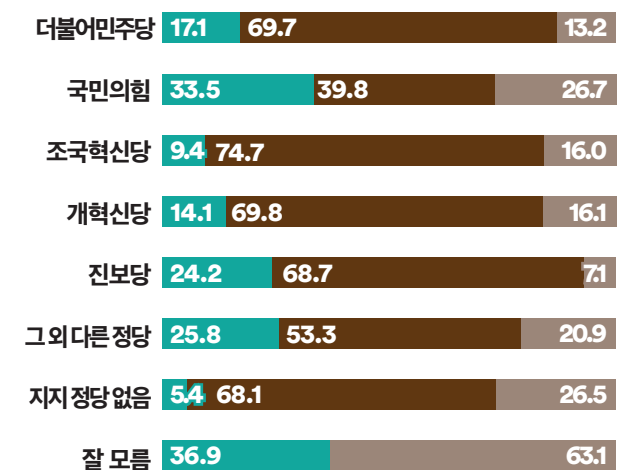
성별



연령



정당지지도



의료체계 붕괴우려는 불필요하다  
의료체계 붕괴우려는 필요하다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했으나, 추석 연휴 응급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추석 응급실 상황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십니까?

CATI

추석 응급실 상황을  
우려한다

87.8

매우 우려한다  
57.2

약간 우려한다  
30.6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  
7.7

3.3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1.2 잘 모름

1.3 잘 모름

3.3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11.0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

19.3  
약간 우려한다

65.1  
매우 우려한다

추석 응급실 상황을  
우려한다

84.4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추석 응급실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76.8%p, ARS 70.1%p)

모든 권역과 연령대 및 성별에서 '추석 응급실 상황을 우려한다'는 응답이 압도적 우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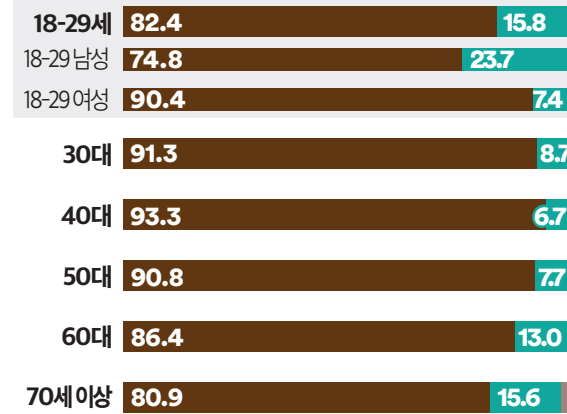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및 국정평가 긍정층에서도 '우려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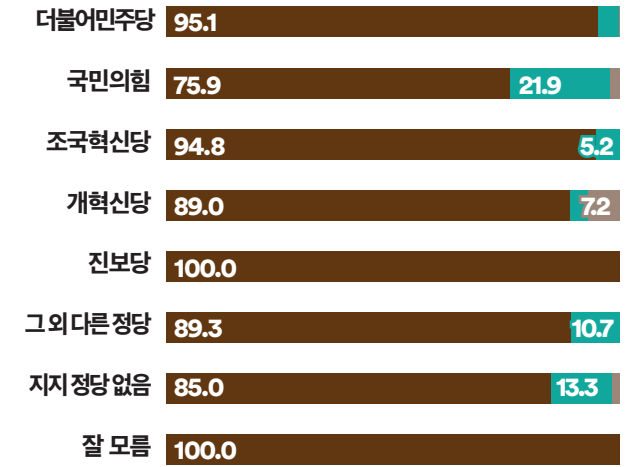
추석  
응급실 상황을  
우려하지 않는다  
11.0

추석  
응급실 상황을  
우려하지 않는다  
14.3

연령



정당지지도



남성

남성

86.5

84.3

12.4

14.1

여성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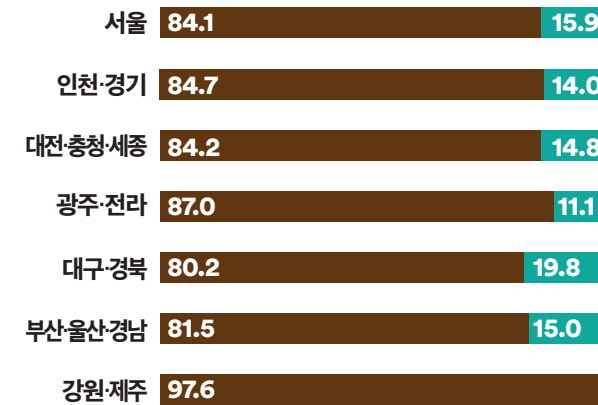
89.0

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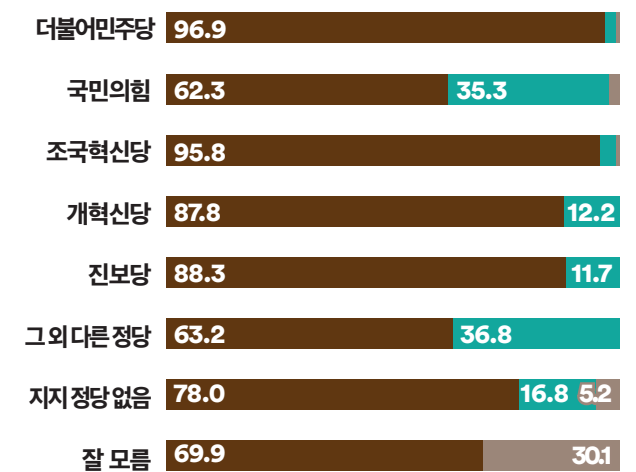
9.7

14.5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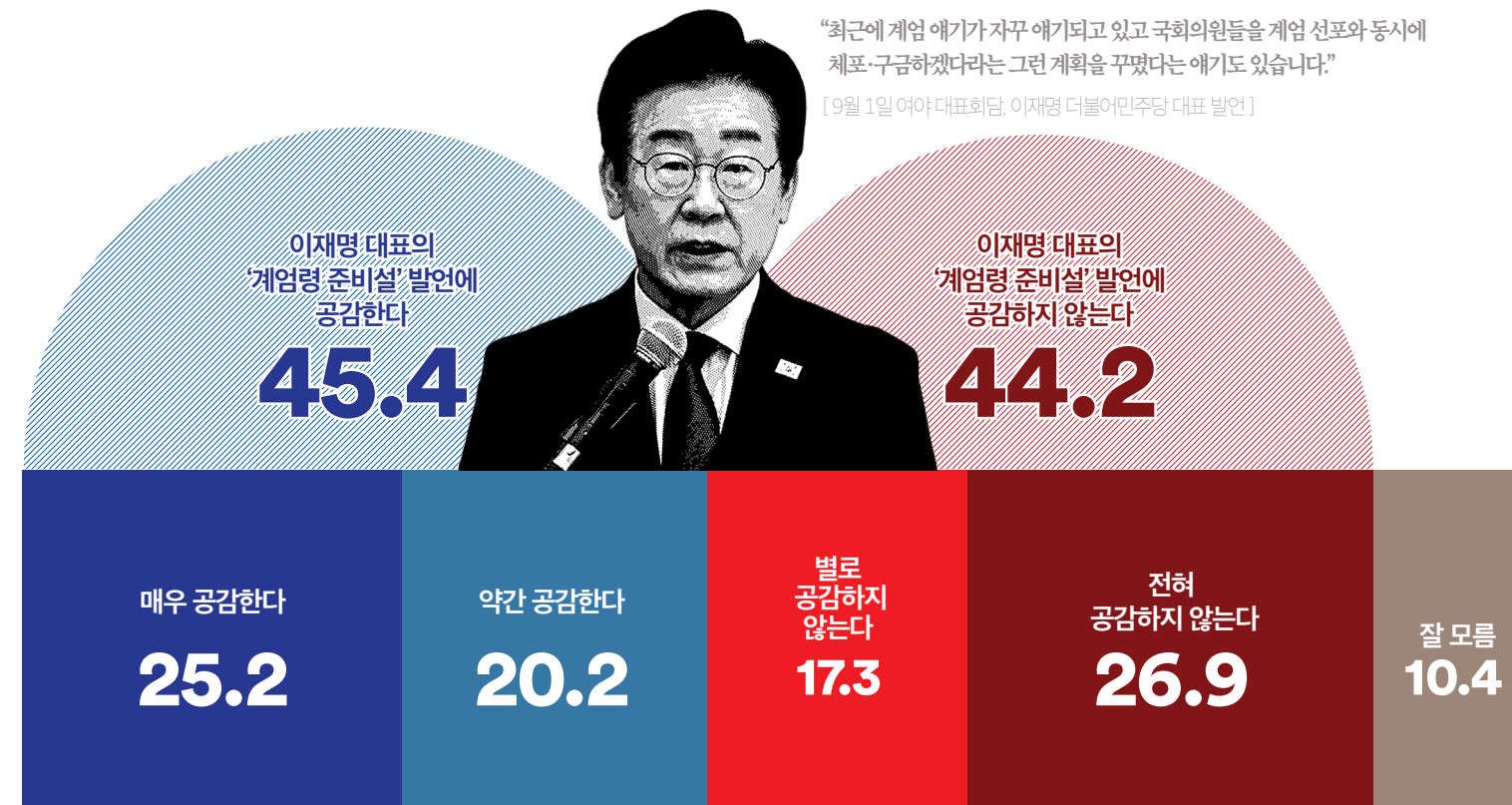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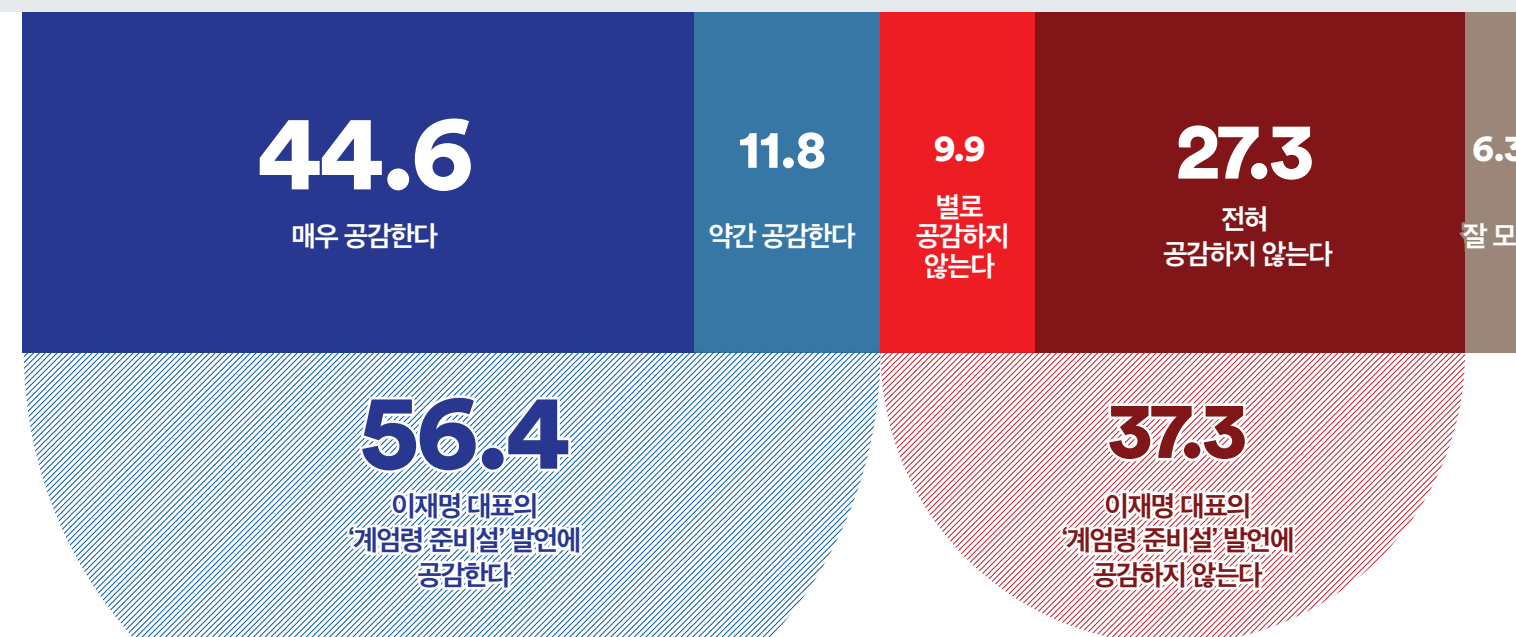
■ 우려한다 ■ 우려하지 않는다 ■ 잘 모름

Q. 박근혜 대통령 파면 국면이던 2017년,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었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준비설' 발언에 대해서는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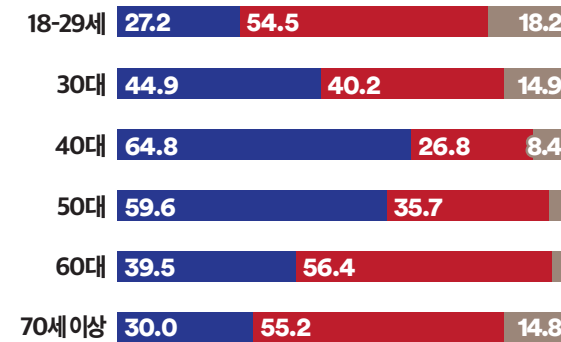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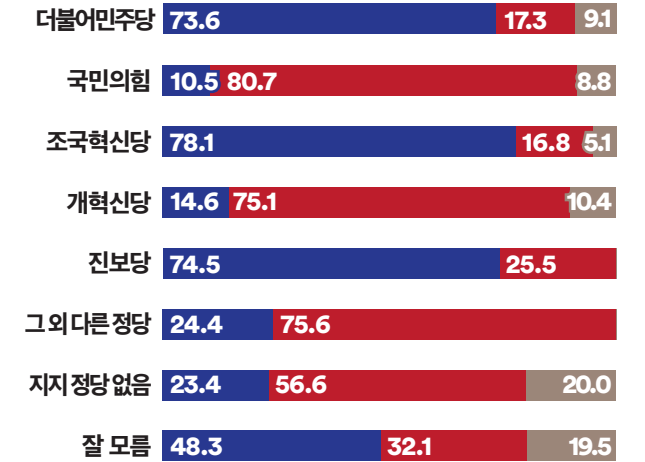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준비설' 발언에 대한 공감도를 묻은 결과  
CATI 조사의 경우 '공감한다'와 '공감하지 않는다'는 두 응답이 팽팽했으나(격차 1.2p) ARS 조사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격차 19.1p)  
두 조사의 호남권과 강원·제주에서는 공감, CATI 조사의 TK지역에서는 비공감 의견이 우세  
CATI조사의 40대·50대 응답층과 ARS조사의 30대·60대응답층에서 '공감'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  
두 조사의 중도층에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앞섬(CATI '공감' 48%, '비공감' 43.5% / ARS '공감' 53.3%, '비공감'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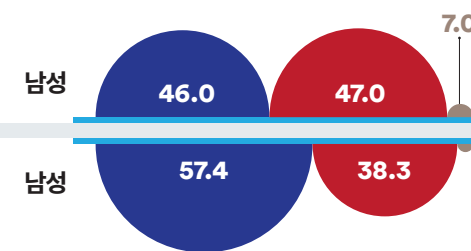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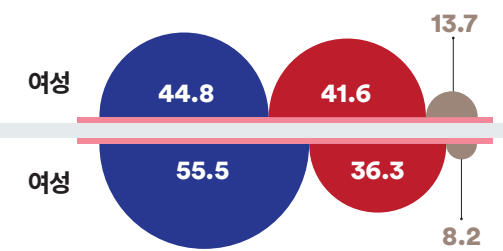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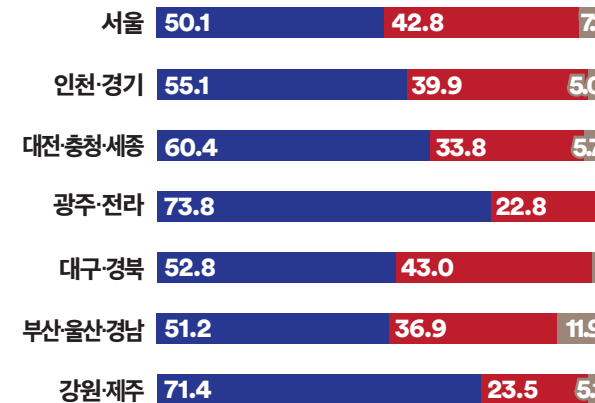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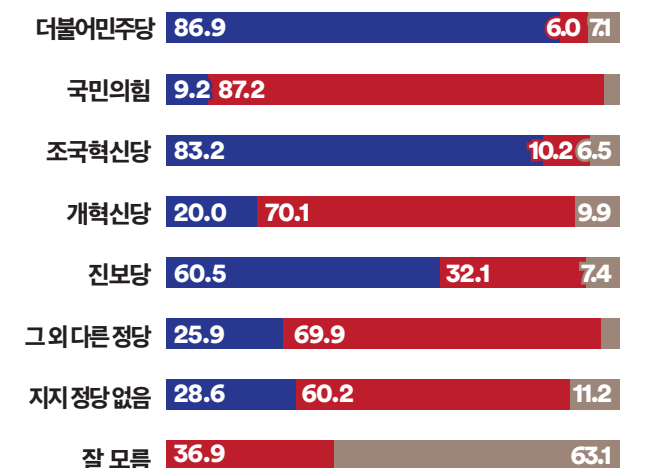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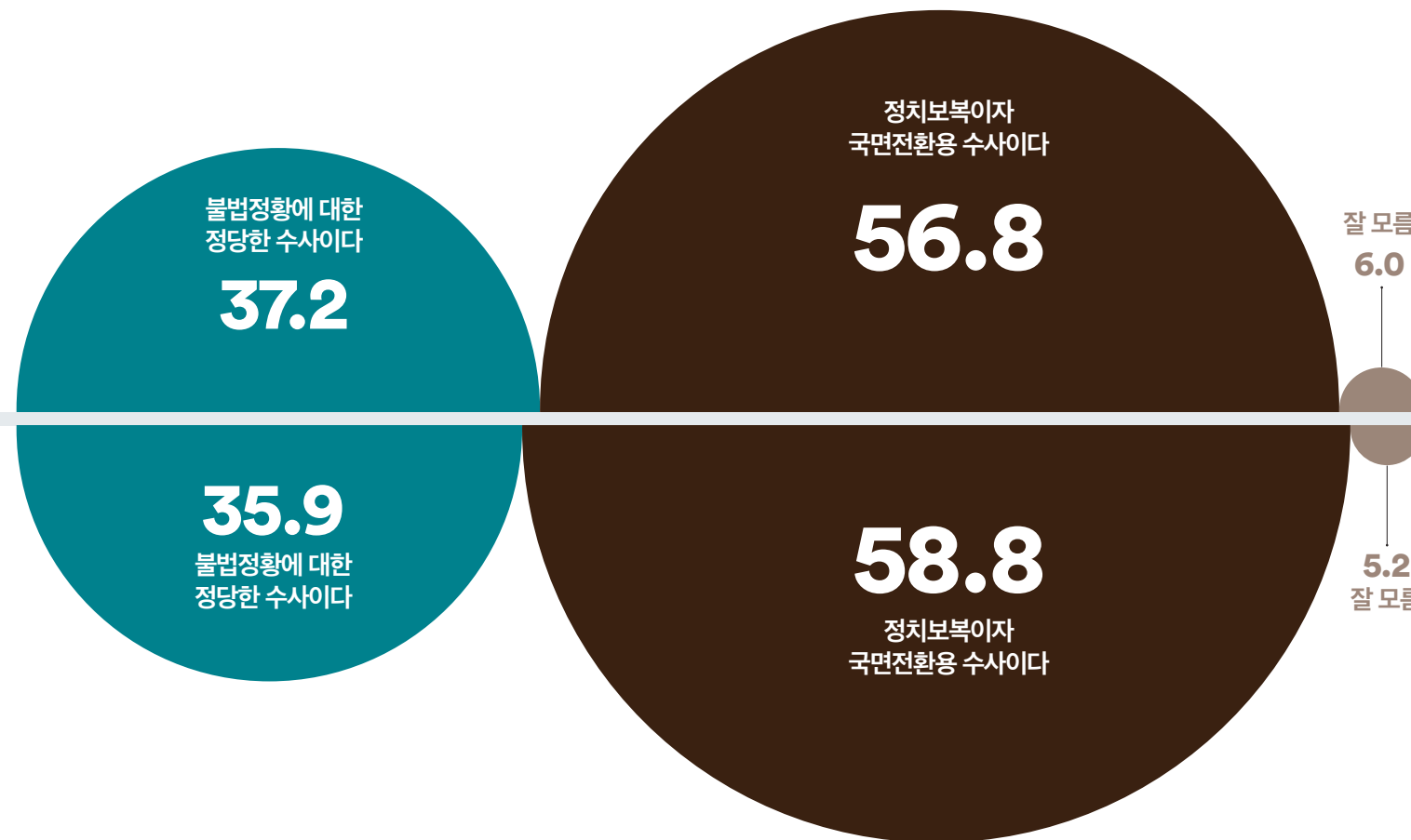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잘 모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Q.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해 수사를 시작했고,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의견 중 무엇에 더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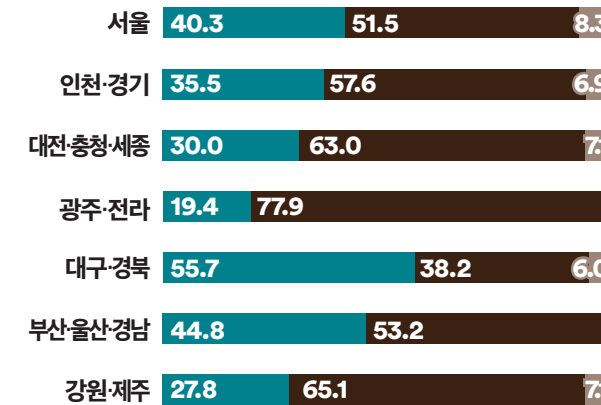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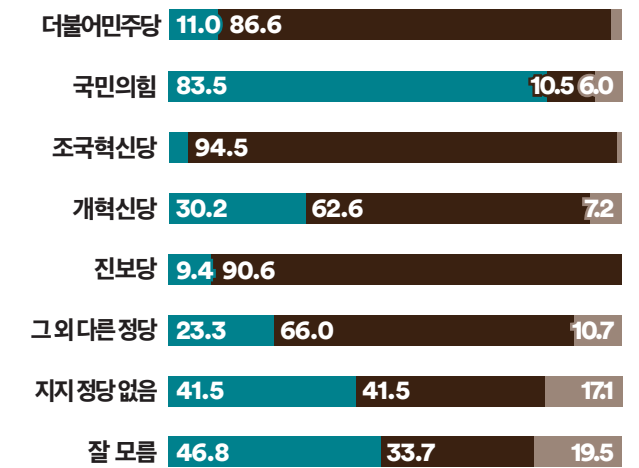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해 시작한 수사의 성격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이자 국면전환용 수사' 라고 응답  
CATI조사의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정치보복이자 국면전환용 수사'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ARS조사의 60대 이하 응답층, CATI조사의 30-50대 응답층에서는 '정치보복이자 국면전환용 수사'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은 두 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에서 앞서거나 우세(응답 간 격차: CATI 24.7%p, ARS 9.8%p)  
중도층의 경우 '정치보복이자 국면전환용 수사'라고 한 응답자가 10명중 5~6명 정도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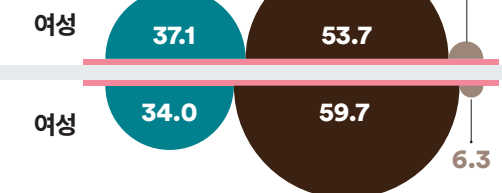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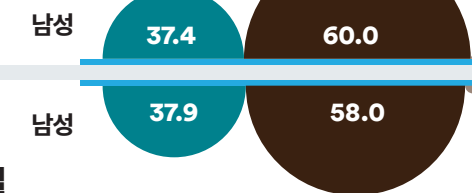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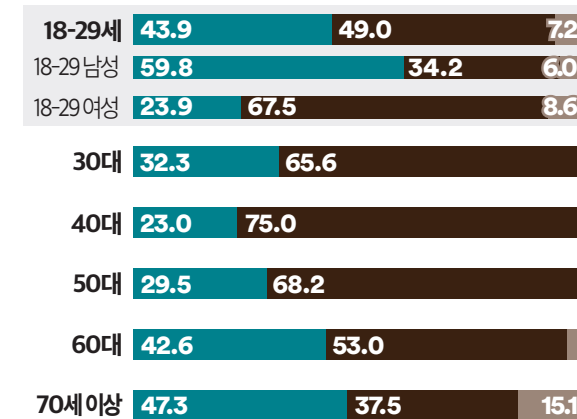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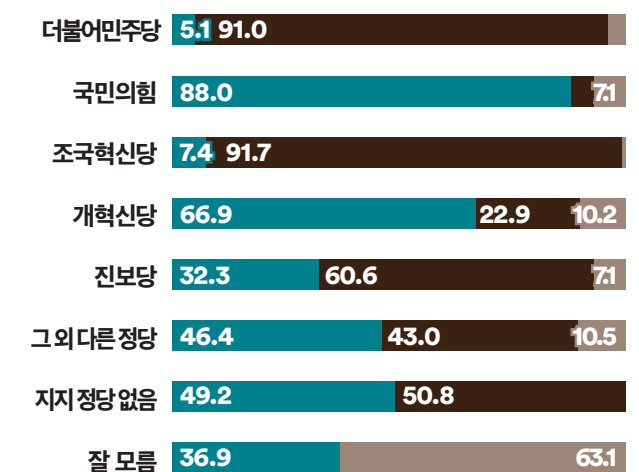
성별



연령



정당지지도



정당한 수사    정치보복이자 국면전환용 수사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WR\_202409\_01

---